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 미 증시, 주간기준 10주 만에 하락 전환

### Key Takeaways

- 12월 비농업 취업자 수 21.6만명 기록하며 시장 예상과 전월 수치 모두 상회
- 12월 ISM 서비스업PMI 50.6 기록하며 7개월만에 최저 기록
- 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불안에 2% 넘게 상승, 천연가스 가격 추위에 강세

### 변화요인

- **미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고용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냉각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12월 ISM 서비스업PMI의 둔화에 주목하며 소폭 상승 마감.** 12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1.6만명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1%를 기록하며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 이로 인해 국제수익률 곡선 전반의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과 달러인덱스의 강세는 증시에 부담을 줬. 그러나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른 점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을 상쇄. 국제유가는 중동의 분쟁 격화와 리비아 유전 폐쇄 영향 등으로 2% 넘게 상승하였고, 장 초반 상승했던 변동성(VIX) 지수는 5% 넘게 하락하며 13.4를 기록. (다우 +0.1%, 나스닥 +0.1%, S&P500 +0.2%, 러셀2000 -0.3%)
- **12월 고용보고서**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1.6만명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17.5만명과 전달 하향 수정된 17.3만명을 모두 상회.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컨센서스 0.3% 상승을 상회. 또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감소해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반면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동일. 3개월 평균 비농업 취업자 수는 16.5만명을 기록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12월 ISM 서비스업PMI**는 50.6으로 컨센서스 52.5와 지난 달 52.7을 크게 하회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신규주문(55.5→52.8)과 고용(50.7→43.3) 등은 둔화한 반면 생산(55.1→56.6)과 원가(58.3→57.4) 부담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매크로 불확실성의 부담은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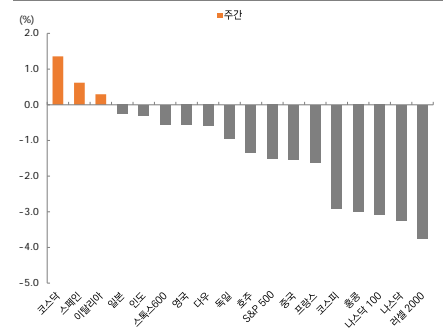
### 특징종목

- **애플(AAPL, -0.4%)**은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4일 연속 하락하며 새해 들어 거의 6%나 하락. 반면, **엔비디아(NVDA, +2.3%)**는 Truist, RBC 등 현지 기관들의 긍정적 전망과 목표주가 상향에 강세. **펠로톤(PTON, +9.6%)**은 틱톡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 **컨스털레이션브랜즈(STZ, +2.1%)**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상승하였고, **코스트코(COST, +1.2%)**는 12월 매출이 전년대비 3% 증가하였고, 전자상거래 매출은 거의 10%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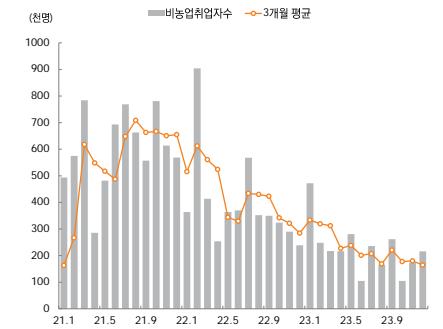
-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강세 기록. 특히, 미 국채 10년 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금리 역전 폭은 -33.5bp로 지난 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산되며 상승 압력이 커졌고,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상승.

그림 1. 글로벌 증시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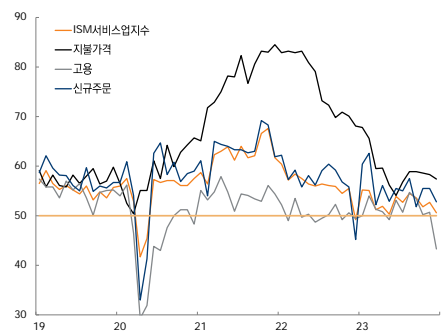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미국 비농업취업자수 추이



자료: 미 노동부,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미국 ISM서비스업PMI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Market Snapshot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4	대형 가치주 ETF (IVE)	+0.2
클린테크 ETF (CTEC)	-1.0	중형 가치주 ETF (IWS)	+0.4
소매업체 ETF (XLY)	+0.2	소형 가치주 ETF (IWN)	-0.2
온라인소매 ETF (EBIZ)	-0.5	대형 성장주 ETF (VUG)	+0.1
미국 인프라 ETF (PAVE)	+0.1	중형 성장주 ETF (IWP)	-0.1
핀테크 ETF (FINX)	-0.0	소형 성장주 ETF (IWO)	-0.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	퀄리티 배당주 ETF (ODIV)	+0.1
클라우드 ETF (CLOU)	+0.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4
사이버보안 ETF (BUG)	-0.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3	미국 국채 ETF (IEF)	-0.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1	하이일드 ETF (JNK)	+0.1
바이오섹터 ETF (IBB)	-0.3	신흥국 채권 ETF (EMBD)	-0.2
로봇&AI ETF (BOTZ)	-0.1	물가연동채 ETF (TIP)	-0.2
반도체 ETF (SMH)	+0.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OD)	-0.4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금융	628.43	+0.5	+0.1	+5.0
유틸리티	327.84	+0.4	+1.7	+2.6
커뮤니케이션	243.15	+0.3	-1.7	+2.4
경기소비재	1,369.16	+0.3	-4.1	-0.0
소재	531.94	+0.2	-1.8	+3.5
산업재	944.00	+0.2	-2.3	+2.7
IT	3,259.48	+0.1	-4.3	-1.3
에너지	647.23	+0.1	+0.9	+3.9
헬스케어	1,623.32	-0.0	+2.1	+5.7
부동산	246.80	-0.2	-3.1	+4.1
필수소비재	762.55	-0.2	+0.2	+3.4

##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3.81	+2.2	+2.8	Dollar Index	102.412	-0.0	+1.2
브렌트유	78.76	+1.5	+2.1	EUR/USD	1.0943	-0.0	-0.9
천연가스	2.89	+2.6	+13.1	USD/JPY	144.63	0.0	+2.6
금	2,049.80	-0.0	-1.6	GBP/USD	1.2720	+0.3	-0.1
은	23.32	+0.6	-4.3	USD/CHF	0.8500	-0.0	+1.0
알루미늄	2,273.50	-0.3	-4.4	AUD/USD	0.6713	+0.1	-1.5
전기동	8,463.00	0.0	-1.9	USD/CAD	1.3363	+0.1	+0.9
아연	2,562.50	+1.0	-3.0	USD/RUB	90.9373	-0.4	+2.8
옥수수	460.75	-1.2	-2.8	USD/BRL	4.8759	-0.5	+0.9
밀	616.00	+0.4	-2.5	USD/CNH	7.1627	-0.2	+0.6
대두	1,256.25	-0.9	-4.2	USD/KRW	1,315.40	+0.4	+1.6
커피	182.80	-1.5	-7.7	USD/KRW NDF1M	1,312.10	+0.0	+1.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046	+4.7	+16.7	스페인	3.151	+3.9	+15.8
한국	3.337	+5.2	+16.2	포르투갈	2.808	+2.2	+15.2
일본	0.610	-0.5	-0.4	그리스	3.324	+6.7	+26.3
독일	2.156	+3.2	+13.2	이탈리아	3.851	+3.6	+15.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